

현대 여성해방 운동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해방운동

이보민
(고신대 부교수)

범위를 성경에 국한시키지 않고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 해방운동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래서 부제를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 여성해방 운동으로 정했다.

옛부터 여성은 차별 대우를 받아 왔다. 그러나 옛날을 따지면 여성만이 차별의 대상인 것은 아니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봉건 영주들이 남녀 농민을 차별하였고 그후엔 자본주(가진자들), 같은 입장의 정치적 지배자(지배자)들이 피지배자 즉, 힘없는 노동자들을 때로는 많이 또는 적게 차별했다. 물론 여자의 경우가 더욱 심했지만 당시 절대 다수의 대중이 차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차별을 받던 대중들이 해방운동을 시작했는데 남자들은 물론 여성들의 해방운동도 18, 9C 이후 구라파에서 모든 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여권운동은 사회제도나, 법률 등에 의한 외형적 구속에서 여성 해방시키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여권운동은 영국,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성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도 1918년에 비로소 로이스조지의 인민법이 통과됨으로 30세 이상의 여안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이 부여되었는데 이는 약 100년 동안 싸운 결과이다. 미국에서도 1920년에 제19차 헌법 수정을 통해서 연

방헌법에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이렇듯 최근에 여성의 권리가 옹호되었는데 독일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동등권의 쟁취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여성의 취업과 동등한 임금을 위한 투쟁이 앞섰고, 이탈리아에서는 교육적인 면에서 여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여성도 남성과 같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가져야 한다는 운동이 성행했다.

여성의 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제하의 다른 독립운동과 함께 일어났다. 특히 초기 여권운동은 1919. 3. 1 운동을 전후하여 민족의 자주를 부르짖으며 일어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생겼으므로 남존여비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거부반응은 일어나지 않았다. 1922년 김필래, 김활란 두분을 중심으로 “조선 기독교여자청년회”가 창립되었는데 이것이 여권운동의 초기 형태였다. 1924년 정동명, 허정숙, 정철성 등이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띤 “조선여성동우회”를 결성함으로 여성운동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자 힘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1927년에는 이두 단체를 하나로 묶고 이를 “근우회”라고 불렀다. 이 근우회는 “①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차별을 철폐하자. ② 일차적 봉건적 인습과 미신을 타파하자. ③ 조혼을 폐지하고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자. ④ 인신매매나 공창을 폐지하자. ⑤ 농촌 부인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자. ⑥ 부인 및 소년공들의 위험한 노동 및 야간 노동을 폐지하자”를 목표로 외쳤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여성해방운동도 세계적인 추세와 거의 동시에 일찍부터 일어났다.

그 후 각 나라들은 법률, 노동, 정치에 있어서 여성 차별에 관한 것들을 철폐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이를 전후하여 다른 서구국가가 채택한 참정권 등을 헌법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서 양 여성 운동가들 만큼의 법적 투쟁 없이 그것을 쟁취하였다. 77년에 개정된 가족법에서의 여성의 상속권 인정은 여성해방 운동의 발전 형태이다. 지금의 우리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성별,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와있다. 물론 아직도 여성들에게 법적인 불공평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시정되기를 바라는 바가 있지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제도에 있어서는 남녀가 꽤 평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과격한 여성 해방론자들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고치라고는 별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의 여성해방운동도 완성 단계에 와있다고 할만큼 법적으로는 거의 완전한 단계이다. 그러므로 여성해방 운동이 필요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날처럼 여성해방 운동이 심하게 일어난 때는 없었다. 이 만큼의 성과에도 여성해방 운동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 경제, 정치적, 법적인 평등의 보장은 여성들이 사회에 직접 경제, 사회면으로 진출하며 나설때에 의미가 있지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진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데 있다. 즉 여성의 진출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지금까지의 여성해방에서 얻어진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여성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진출을 못하게 하는가? 이에 대해 과격한 여성해방론자들은 여성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현대적 의미의 여성운동이 생겨나게 되었다.

여성해방론자는 “남녀 불평등의 근본문제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핵가족 제도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가부장적 핵가족제도하에서는 남편은 밖에서 일해야 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므로 가부장 제도가 있는 한 어떤 평등이든 있을 수 없으며 여성은 억압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므로 여성해방론자는 핵가족 제도를 비난하고 핵가족이 아닌 집단가족을 지지한다. 집단가족은 모든 가족의 가사참여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여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격한 급진주의자는 “여성은 출산은 해야 한다”는 자연적인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여성 이 가정에 자녀의 어머니로 둑이는 것은 여성 자신이 그 자체를 본능, 이득, 보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 스스로가 가정에 떠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새롭

게 문제된다. 여성들은 “여성의 미덕은 아름답고, 양보하고, 부드러운 것” 등이라는식의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그러므로 이런 여성적인 것들이 여성의 본능이라는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여성해방은 있을수 없다.

마르쿠제도 비슷한 견해를 말하는데 본래 여성적인 본능, 남성적인 본능 등은 나뉘지 않는 것이며 인간의 본능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문화라는 것에 의해 여성에게는 여성적인, 남성에게는 남성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마치 여성본능과 남성본능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런 생각이 여성을 특징짓고 규제하게 되었다. 사실상 똑 같은 하나의 본능이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규제로 인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고 남성들은 다른 방법 즉, 남성에게 있어서 무방하게 인정받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므로 하나의 본능이 남자-여자로 차별 대우를 받아 본능이 각각 다른 것처럼 본능적 차원에서 벌써 여자와 남자의 차별을 초래하게 될때 많은 법적인 평등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해방론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격한 해방론자는 옛날 여성들이 남성들의 외도를 많이 관용했으므로 이제는 남자들이 여자들의 외도를 관용해주어야 할 때라고 하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어도 여성이 가정에 묶여 있으므로 진정한 여성해방은 있을 수 없었고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진정한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이란 여성을 얹어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여성에게는 아편적인 것이라고하는데 이런 생각은 비판되어야 한다. 이런 견해는 성경에서 배우는 성경적 가족관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족을 이루어 함께 한평생을 지내기를 바라셨다. 그런데 가정을 아편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가족관과는 너무도 다르므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에 비판의 중점을 두거나 이에 국한시키지 말고 이들의 이론에서 보이지 않는 의도를 밝히고 여성해방 운동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새롭게 하는 이론적

무장을 해야 한다. 과격한 여성해방운동은 인간 해방 운동과 흐름을 같이 하므로 그 맥을 인간 해방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맥에서 빼 수 없는 것인 공산주의 사상을 살펴보면 인간은 필수적으로 사회적 차원의 노동에 개입되는데 사회적 차원의 노동이란 사회에서 공개되어지는 기업이 제공하는 노동을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직접 간접으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신앙심이나 도덕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노동에 가담함으로써 노동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노동에 의해 똑같이 가담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제공해주는 자본주와 노동을 받아 행하는 노동자로 각각 가담한다.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 차원의 노동을 두고 전혀 다르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데 여기에서 투쟁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인간을 움직이는 요인을 다른 것으로 본다면 이 투쟁이 결정적일 수는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타 요인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아니한다고하여 인간을 움직이는 요소는 철저히 노동을 중심한 요소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노동에 대한 각자의 다른식의 참여는 사회계층적인 분쟁을 야기시키고 특히 자본주들은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사회계층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투쟁을 못하도록 억압하고 지배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들은 노동자들이 노동력으로 자신들의 지배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혹은 노동력에 의해 사회적인 힘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인간은 해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공산주의적 인간해방론이 등장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해방은 투쟁과 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런 해방운동이 노동자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악덕 자본주를 물리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일을 했으며, 여성들의 법적인 지위를 높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해방론은 근본적으로 오류를 가지는데 이는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에 의한다는 것과 이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착취가 초래되므로 투쟁 즉 혁명을

통한 해방운동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사실이다. 물론 악덕 자본주인 경우에는 노동자를 착취할 때도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런 착취가 없어지고 완전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없애고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자본주가 악인이든 호인이든 상관없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덕 자본주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이다. 공산주의에서는 혁명으로만 낙원이 이루어지고 해방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후기 자본주의, 복지민주사회 국가들의 발전에서 알 수 있다. 왜냐면 오늘날 이들 국가의 노동자는 문제를 가지긴 하지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본주들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고 미리 조처해 주고 있으므로 노동자와 자본주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양자는 친숙한 관계가 되었으며 자연히 그들 사이의 투쟁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 노동자에게 있어서 노동은 그들에게 만족을 주므로 더 이상의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자본주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에게 만족이 있으므로 공산주의의 해방이론이 잘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동에 의해서 만족이 된다면 더 이상의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실제는 다른 각도의 불만이 생겨난다. 이를 볼 때 노동이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기가 된다는 것이 틀렸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의 기본적인 잘못이다.

이런 공산주의 이론을 배격하면서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를 심리학에 둔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적 본능이 실제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것이 문화, 체면, 위신, 교양에 의해 규제되므로 불안과 정신질환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심리주의에 영향을 받은 新맑스주의자들이 새롭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공산주의 해방론에 근거를 두면서도 심리적 본능이 인간을 움직인다는 심리주의 이론과 사회적 노동이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사회적 이론을 합한 새로운 해방론을 내세웠다. 이 이론은, 본능이 인간을 움직이지만 이 본능이 잘못 발휘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한다. 특히 본능의 잘못된 발휘가 모성애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심리적 본능이 오직 사회적, 정치적 측면으로 발휘되어야만 참다운 인

간이 되는데, 이 본능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규제되거나 잘못 발휘되면 인간은 억압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이 모두 사회적으로 발휘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므로 집권자들은 본능이 정치적 차원으로 발휘되기 전에 막으려고 하는데 이는 성적 영화 상영, 스포츠, 휴가, 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노력으로 집권자들은 본능을 억제하게 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능은 본능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집권자들에 의해 억제되므로 인간은 자연히 참 의미를 상실당하고 규제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이런 억제들을 타파하고 사회적 관심으로 원초적인 본능을 발휘할 때만 인간의 해방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해방론자들은 모성애로 불리우는 여성의 본능은 인간의 본능이 잘못 발휘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잘못된 발휘를 하도록 만드는 온갖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과격한 이론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런 이론들을 자세히 보면 그 자체에서 모순을 찾게 된다. 인간이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은 억지다. 물론 인간이 본능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억압할 수 있는 도덕심, 종교심 등도 역시 인간 자신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본능만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주장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전인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또 이런 본능이 발휘되는 것에 있어서 정치적인 측면에만 국한 된다는 것도 억지이다. 인간의 생활 영역은 각기 다른 영역으로 되어 있고 인간이 전인적인 것처럼 생의 영역도 전체적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전인적으로 행위전체 영역에서 자신을 표현한다. 이는 전체 영역의 전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이것이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에 따라 본능적인 면, 도덕적인 면, 정치적인 면, 가정적인 면 등 각각의 면들 중에서 특히 강하게 표현되는 면들이 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전체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강조되어 나타날 뿐이지 그것이 곧 본능이며, 전체라고 말하거나 그 사람을 특징지을 수는 없다. 단지 일면이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

다. 그러므로 과격한 여성 해방이론은 이론적으로 배격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해방 운동을 하는 자를 너무 지나치게 백안시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인과는 다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특별히 잘못된 점은 그들 자신이 그런 특정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사실보다는 누구나 다 그런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며 자기와 같지 아니한, 가정에 가만히 있는 여성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조건 억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무조건 이들의 주장이나 생각을 배격하기보다는 그들의 이런 면의 표출을 일면의 강조로 이해해주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강조점에 어떤 차이가 있든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이론을 우리는 가지므로 이들의 일면적 표출도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그들의 주장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이론을 우리는 신학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그들의 주장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는 아량도 베풀어야 할 것이다.